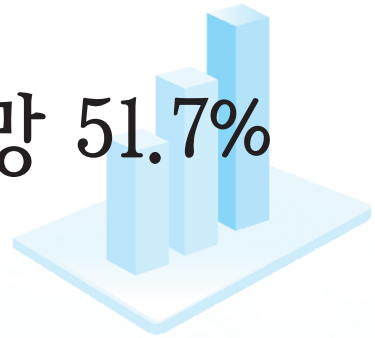


임금피크제 도입 희망 51.7%



항상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한 시대, 고용 안정성과 임금,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, 직장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

너도 나도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잘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 보장은 참으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.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도 몇 십 년을 아무런 보수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. 특히,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1970년 3.1% → 2000년 7.2%(고령화 사회) → 2018년 14.3%(고령사회) → 2026년 20.8%(초고령사회)에 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생산 가능인구(15~64세) 7.9명당 노인1명을 부양했지만, 2020년에는 4.6명당 노인1명, 2050년 1.4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결국 사회 보장제도에 의한 노후보장은 힘들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.

결국 은퇴를 늦추는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셀러리맨들에게 있어 노후 대비는 당연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. 최근 한 취업·인사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,052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.

조사결과, 직장인의 51.7%(544명)가 ‘고용이 보장된다면 임금이 깎이거나 동결돼도 좋다’고 응답해, ‘고용보장 대신 임금 인상’을 택한 직장인 48.3%(508명)보다 3.4%p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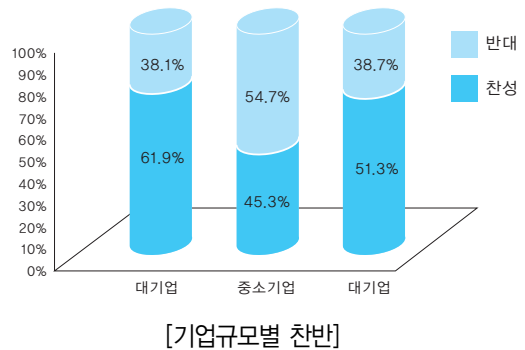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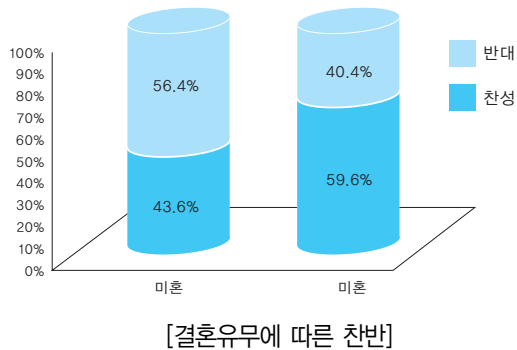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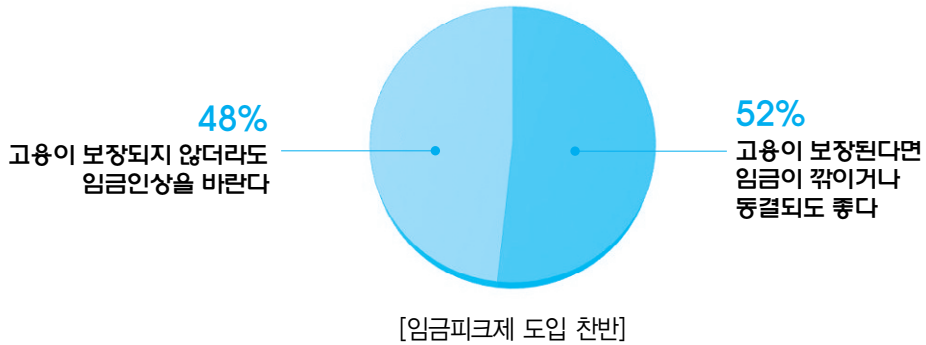
특히 연령, 기업규모, 결혼 유무에 따라 직장인들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. 연령이 많을수록, 대기업 재직자일수록 ‘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성’을 택한 반면, 연령이 낮을수록, 중소기업 재직자일수록 ‘고용 안정성보다는 임금’을 택한 것. 또 미혼보다는 기혼이, 여자보다는 남자가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먼저 연령별로는, 40대 이상 직장인의 77.0%(114명)가 ‘고용이 보장된다면 임금이 깎이거나 동결돼도 좋다’고 응답, 전 연령에서 고용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. 고용불안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취업도 쉽지 않아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것. 그 뒤를 이어 30대 52.0%(342명), 20대 35.8%(88명) 등의 순이었다.

이와는 달리 ‘고용보장 대신 임금 인상’을 희망하는 직장인은 20대가 64.2%(158명)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23.0%(34명)에 그쳤다. 나이가 적을수록 자신의 경력 개발을 통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, 고용보장 대신 임금을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또 대기업 재직자가 고용 안정성을 원한다면, 중소기업 재직자는 임금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【직장인 설문 결과】



대기업 재직자는 61.9%(140명)가 ‘임금 대신 고용 보장’을 택했으며, 중소기업 종사자는 54.7%(350명)가 ‘고용 보장 대신 임금 인상’을 선택했다.

그렇다면 고용보장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몇 살부터 ‘고용이 보장되는 대신 임금 삭감 또는 임금 동결’이 적용되길 바랄까?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희망 시기는 평균 48.9세로 나타났다. 기혼의 임금 피크제 도입 희망시기는 평균 50.3세로 미혼 47.0세보다 늦었으며, 또 남성은 평균 49.8세인데 반해, 여성은 44.2세였다.

“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다, 취업난 속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”며 “실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는 ‘정년 늘리기’가 화두로 떠오르면서, ‘정년 보장’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